

[제3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작가와의 대화]

그 자리에 함께 있기

－ 몫 없는 자들의 말하기와 문학의 민주주의

1. 12·3 내란 이후, 문학과 민주주의

강동호: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기 - 몫 없는 자들의 말하기와 문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김멜라 작가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멜라 작가를 모시고, 최근 한국 사회가 통과해 온 시간 속에서 과연 문학이 무엇을 사유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현실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세대적 긴장 속에서, 문학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멜라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의 강동호입니다.

배하은: 같이 사회를 맡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배하은입니다.

강동호: 우선 김멜라 작가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멜라 작가님은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동시대 한국문학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설가 가운데 한 분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소설집 『적어도 두 번』, 『제 꿈 꾸세요』, 장편소설 『없는 층의 하이센스』, 『환희의 책』, 그리고 최근에는 『리듬 난바다』를 출간하셨습니다. 기존의 규범적 문학 재현과 세계 인식을 전복하는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셨고, 이효석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문지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멜라 작가님의 소감과 청중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김멜라: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구자분들이 함께하시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오전부터 여러 가지 행사와 세션에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제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부담도 있습니다. 워낙 침례하게 책을 읽고 연구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흑여라도 말실수를 할까 두려움도 조금은 듭니다. 흑여라도 제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고,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호: 아시다시피 제3회 현대문학자대회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는 12·3 내란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동과 갈등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문학 연구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선고문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을 통과하면서 작가님께서 한 사람의 시민이자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해오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김멜라: 안 그래도 어제 3시에 저도 생중계를 보았는데요. 판결문을 들으면서 폭동의 계획이 허술하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이 감형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구나, 사법부의 논리를 처음 알았고, 그럼에도 주요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아서 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거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크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고 심판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크고요. 아직 계엄과 폭동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계엄 때 포고령, 이번 선고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변론, 사법부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언어로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언어 싸움이더라고요. 상당히 논리는 영성한테,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상대의 말을 인용하느냐의 투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의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의 역사적 순간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훗날 창작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불

랙코미디의 한 장면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동호: 작가님께서 계엄 직후 한 문예지(『문학과사회』)에서 마련한 기획 특집에 참여하셔서 「계엄 파편」이라는 산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내란의 주범을 향한 분노와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작가님의 산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부의 적에 대한 비판보다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에 가까운 태도였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 계엄이 바깥에서 들이닥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싹터 왔음을 생각한다”, “괴물은 내 이웃이고 계엄 또한 나의 일부다”라는 문장 등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때 작가님께서 산문을 쓰면서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더해 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멜라: 모든 글이 그렇지만, 「계엄 파편」은 특히나 제가 굉장히 어렵게 쓴 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시 상황이 무척 급박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며, 그 감정이 제 안에 뒤엉켜 있기도 했습니다. 그 지면에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글에도 썼지만, 그 당시에 저희 엄마께서 한밤중에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두려워하시면서 지금 당장 국회로 가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던 순간 때문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우셨대요. 영영 우셨대요. 저는 당시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마음이 컸는데, 어머니는 영영 우셨다고 하셔서, 대체 그 감정이 뭘까, 엄마는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나고 무서워서 우시기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때 제가 엄마에게 반응했던 것들, 그러니까 엄마는 국회에 가시면 안 된다, 노인이시고 혼자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저의 진솔한 반응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토록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예지에서 특집 지면을 만들고 있던 동료 작가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힘든 와중에도 지면을 만들고 목소리를 모으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글을 쓰면서 저 자신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이 가진 정의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실천과 행동 같은 것들이 제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갔던 시민들, 그때 남태령에서 밤새 시위대를 지켰던 분들, 매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시위에 함께했던 시민분들과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즉 글 쓰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이전의 계엄 사태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1980년대의 계엄을 찾아보면서 당시 포고문을 보았는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방송, 언론, 대학을 통제하고 모든 출판물을 검열한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이번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폭동을 준비하면서 언론사를 단수하고 단전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만약 그것이 실제로 시도되었다면, 그리고 모든 출판물을 정말 검열하려 했고 그것이 가능해졌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은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었던 거죠. 행방을 알 수 없는 사태가 정말 제 코앞까지 왔다고 느꼈고, 그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공포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이었고, 저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또 돌이켜보게 된 것은, 무엇이 역사를 44년 전으로

돌려 이런 폭력을 일어나게 했을까, 더 나아가 인간의 어떤 점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무지막지한 일을 자행하게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언어로 그 사태를 느끼고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언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최대한 진솔하고 정직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배하은: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이 담긴 「계엄 파편」의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직접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싶은데요. 어떤 대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까요?

김멜라: 앞에서 강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엇이 이런 계엄을 일으키게 했는지 성찰해 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대목을 고르면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혹시 이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또 여러분께 그런 소극성을 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인류사와 문화를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이 글에 쓴 것처럼 인간의 사랑만큼이나 인간의 증오도 굉장히 뿌리 깊고 오래되었으며 힘이 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낭독) 만약 내 이웃의 누군가가 수세에 몰려 판을 뒤집을 타개책을 바랐다면, 못마땅한 현실을 대번에 꿰맞출 거대하고 숙 시원한 음모론을 갈구했다면, 자신 외의 모든 의견을 발밑에 두고 반대파를 단방에 쓸어내고 싶었다면, 그 하나하나의 계엄이 뭉쳐 오늘날의 폭발물로 터진 것이다. 크든 작든 우리는 그 파편에 데고 찢기며 일상이 뒤흔들렸다. 공동체로 묶여 있는 한 누구도 계

엄 바깥에 머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특정 집단의 괴물 같은 도발로 한정 지어 계엄 세력과 개인 사이에 담벼락을 둘러칠 수도 없다. 선량한 개인이 개인으로 그칠 수 있는 것 또한 혜택이며 행운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 최악의 학살은 그 하나 하나의 얼굴이 집단이란 단일한 표정 안에서 몽개져 추상화의 도취가 극에 달했을 때 뒤따라왔음을 기억한다. 천황을 위해, 게르만 민족을 위해, 신의 뜻을 받들어. 그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인류의 바깥으로 쫓아내 없앨 수 없었다. 사랑이 진실이라면 증오 또한 진실이며 나는 그 양쪽의 결과물이자 대물림의 연결 고리다. 그러므로 괴물은 내 이웃이고 계엄 또한 나의 일부다. 계엄은 여럿의 꿈이자 열망이었으며 제발 누구 하나라도 터뜨려주길 바라는 집단의 충동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계엄이 있어야만 했다는 합리화의 목소리는 어째서 예나 지금이나 점점 더 커지는가. (『계엄 파편』, 『문학과 사회』 149호, 2025, 봄, 하이픈, 19~20면)

배하은: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대목은 모든 문장이 깊이 남지만, 저는 특히 “자신 외의 모든 의견을 발밑에 두고 반대파를 단방에 쏘어내고 싶었다면, 그 하나하나의 계엄이 뭉쳐 오늘날의 폭발물로 터진 것이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글 「계엄 파편」의 다른 대목에서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면서 내가 갖게 된 생각의 습관이 있다면, 특정 의견에 내 마음이 기운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그 반대되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보고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작가님의 소설 창작 방식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적 소통의 실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인상 깊게 다

가왔어요. 실제로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이 소설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소설을 쓰시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구체적인 경험이나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또 이처럼 타자를 이해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문학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김멜라: 우선 저는 특별히 한 인물을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여러 사회학적 자료를 분석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소수자나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시는 예술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유와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성장 중이고 과정 중인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하은 선생님께서 “어떤 민주주의를 꿈꿀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문장이 저한테는 참 아름답게 들렸어요. “어떤 민주주의를 꿈꿀 수 있을까.” 제가 꿈이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적어도 언어를 쓸 때 조금 더 아름답게 쓰려는 노력과 연습이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움은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기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선하고 올바른 것도, 진실된 것도 당연히 아름다움과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런 것처럼 글이나 사유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이 중요한 만큼 서로 대화를 나눌 때의 아름다움 역시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설을 쓸 때 의식하는 것은, 익숙한 인물이나 익숙한 시

집에만 머물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녁놀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작품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의 시점이 아니라 그 커플을 바라보는 모모의 시점에서 글을 썼잖아요. 저에게 익숙한 시점이라면 그 커플의 시점일 텐데, 소설을 구상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쓰다 보면 저와 반대되는 시점, 제가 알 수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인물을 다시 보려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거창하게 관계의 깊이를 다루겠다거나 소설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쓰는 제가 그래야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새롭고, 그래야 쓰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쓰는 제가 재미있어야 읽으시는 분들도 호감을 갖고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시선, 저에게 낯선 관점을 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쓸 때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어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입니다. 「저녁놀이」로 예를 들자면, 원래는 모모가 일종의 폭탄처럼 스스로 터지고, 그러면서 그 커플에게도 피해를 가하는 방향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서사를 쪽 생각하다가, 이것이 과연 이 소설적 공간에서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모모와 그 커플을 공존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고 능청스럽게 결말을 맺었는데, 소설을 쓸 때 제가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결말 맺을 것인가, 이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표현할 것인가. 그 점이 항상 저에게는 고민의 지점이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민주주의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마침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떠오른 것은 누구에게나 발언권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짧더라도 공동체 안에 마이크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나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1절은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간주 점프하지 않고, 옆에서 일부러 소음을 내며 그 목소리를 지우지도 않고, 1절을 다 부를 때까지 경청하는 거죠. 누구나 1절은 끝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마이크를 든 사람도 2절 욕심을 내지 않고 1절만 하기. 그렇게 ‘1절’이라는 선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소수자든 다수자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글로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일이 아닌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소수자 재현과 급진적 상상력

강동호: 자연스럽게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관련해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을 쓸 때 어떤 것을 고민하는가, 다양한 목소리들의 공존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최근작 『리듬 난바다』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듬 난바다』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장편소설다운 장편소설을 읽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흐친이 장편소설을 이야기하면서 목소리의 다성성을 강조했잖아요. 『리듬 난바다』에서도 단순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인물들이 각자의 욕망 속에서 갈등하고 선악이 엄격히 나뉘지 않는 방식으로 공존합니다. 그 안

에 작가님의 관심사와 중요한 비전들이 함께 관통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때로는 경합하지만 하나의 기준이나 잣대에 의해 사라지거나 배제되지 않는 소설적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의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그 흐름을 크게 주도했던 것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퀴어, 장애, 소수자 주체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가시화하며 그 목소리를 다시 발굴하려는 노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학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작가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작가님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작가로 문학장이나 비평장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 흐름과 함께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작가로서 계속 고민하시면서 지난 10년을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갖고 계신 문학적 고민들도 궁금하고요.

김멜라: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투 운동이겠죠. 그다음에 문단 내 성폭력 공론화, 페미니즘 리부트, 그리고 퀴어나 소수자 서사에 주목하는 흐름이 문학과 예술계에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에게는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을 쓰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 그 흐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첫 소설집을 내고 혼자 글을 쓰는, 보이지 않는 작가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들어 오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튜브로 어떤 세션을 들었는데, 어떤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도 학교 내 미투

관련 폭로나 공론화가 나오면 거기에 가서 함께 연대하시느라 연구를 못하시고 또 학교 안에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생겨 노조가 파업하면 거기에 가서 함께 시위하시느라 연구를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활동이 기쁘고, 자신에게는 연구의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그런 활동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의 자리에서도 그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의 변화는 미투 운동과 문단 내 성폭력 공론화, 페미니즘 리부트, 그리고 퀴어와 소수자 서사의 확산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의 글쓰기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시에 그 변화는 작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수많은 연구자와 작가, 활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 온 연대와 실천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충분히 중요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흐름이 다시 하나의 익숙한 형식이나 규범이 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 재현 역시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읽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일정한 기대나 역할의 틀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님께서 소수자 재현이 어느 정도 문학장 안에서 가시화되고 제도화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흐름이 하나의 상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작가의 작업이나 재현에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급진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멜라: 소수자 재현이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양식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적인 바탕이 먼저 필요합니다. 양적으로 충분히 갖춰져야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도 시도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수자 서사나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 다음에는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가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은 새로운 것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자기 개성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어떤 틀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 식대로 변형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올바른 서사이고,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기준이 생겼을 때, 실제 삶에서 그것이 소설에 그대로 재현되거나 재현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조금 위축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소수자를 나쁘게 쓰면,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겁도 납니다.

최근에 쓴 소설 중에 아직 문예지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교정을 넘긴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는 10대가 웹툰을 그리면서 성적인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고민했죠. 이게 굳이 필요한가. 왜 꼭 그렇게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야 할까. 미성년인데. 계속 고민하면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썼던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청소년의 마음으로 낙서하듯 그림을 그리는 장면인데, 그 그림에는 분명히 어떤 뉘앙스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처음 썼던 글의 생동감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10대도 돌아봤습니다. 내가 10대 때 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요즘 10대와 SNS 문화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비

판이 저에게 온다고 해도 이걸 감당할 수 있고, 당연히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쓰기는 했어요. 그런 윤리적 혹은 미학적 고민은 작가라면 누구나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고민은 읽으시는 분들도 다 느끼신다고 생각해요. 그 작가가 정말 소비하듯이 썼는지, 아니면 조금 머뭇거렸는지,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 뒤로 주춤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소설을 발표하고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면 “이번 소설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설명적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소설을 읽은 어떤 분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는 감상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쳐 갔거든요. 단편소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쉬움은 없지만, 내가 또 겁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거나 모호하다고 할까 봐 겁을 먹어서 설명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서 제 느낌을 읽어 주실 분들은 다 계시고, 의식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너무 그것에 겁을 먹고 주춤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잣대로 귀어는 어떻게 다뤄야 한다거나, 어느 선까지 공동의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쓰는 사람의 순간순간과 읽는 사람의 순간순간이 동시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하은: 급진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귀어한 소수자를 재현하는 소설에서 그런 급진성이 작가님의 작품에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느꼈습니다. 『저녁놀이』에서는 모모의 눈으로 레즈비언 커플을 바라보고, 『환희의 책』에서는 곤충의 눈으로 레즈비언 커플을 관찰하다가 색의 종말이라는 주제로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가님의 소설은 제도화되기 어려운 급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신유물론이나 ANT 이론처럼 사물 객체나 비인간 객체의 시점에서 인간을 다시 바라보려는 시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흐름에서, 최소한 한국 현대문학에서는 김멜라 작가님의 작업이 중요한 시작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서는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어떤 가능성이나 방향성을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멜라: 신유물론이나 비인간 시점에 대해서요. 저도 신유물론 관련 책들을 소설가로서만이 아니라 독자로서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시듯이, 저도 연구자분들의 논문을 재미있게 읽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살펴보는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관련 글들을 잘 찾아보는 편이고요.

한동안은 비인간 생물들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이 조금 더 옮겨가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일과 관련해서요. 제가 어찌다 IT 포럼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기술 쪽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이 글을 쓴다면 동료 작가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인공지능이 느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이미 쓰인 책을 짜깁기해서 쓰는 방식이나 그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센서를 통해 감각을 갖고, 그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 글을 쓴다면 저는 동료 작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비인간이라는 것은 꼭 인간이 아닌 다른 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가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작가의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늘 돌아가게 되는 지점은,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미 인간은 우위를 차지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화사적으로 보아도 가장 우위를 차지했던 것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종이 아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요. 인간은 지능으로 우위를 점해왔지만, 이제는 그 우위 역시 우리가 계속 점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위를 점해서 지구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의 발전이나 다른 종에 대한 관심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생각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소설가니까 그런 면에서 소설은 굉장히 열려 있는 매체이자 형식인 것 같아요. 소설은 항상 미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꼭 SF가 아니더라도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꿈꾸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이나 소설, 서사가 지닌 가능성에는 새로운 부흥기, 또 다른 부흥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사실 인류사에서 책이 언제나 그렇게 많이 읽힌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실 분들이지만, 원래 독자의 규모라는 것도 딱 이만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출판 산업이 흥하거나 세계적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수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상상의 가능성이 실험으로 나온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문학의 부흥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3. 허구의 힘

배하은: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발표하신 장편 『리듬 난바다』의 한 대목을 작가님께 직접 낭독 부탁드립니다,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골라주셨나요?

김멜라: 제가 고른 대목은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20대를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알거나 미래를 알면 어떤 선택은 하지 않고, 후회할 만한 길로 가지 않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끝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한 대목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낭독)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두렵지 않아. 오히려 밤하늘의 폭죽처럼 우리를 에워싼 암담함을 요란하게 깨우는 것 같아 쓴웃음이 나기도 하지. 스물둘, 표정도 마음도 흰히 비쳐서 살아갈 날의 아픔에도 투명하게 무지했던 나. 나는 그때의 나에게로 가서 말해주어야 해. 일출과 월출, 노화와 유화…… 너의 일부는 찢기고 명들겠지만, 그 아픔의 길을 통해 또다른 빛이 떠오르고 있다고. 너의 몸이 늙고 쇠약해지는 동시에 너의 꿈은 점점 더 힘차고 선명해지고 있다고. 그러니 부디 너에게 덮쳐오는 미움과 증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고. 그 양갈음의 고리를 끊어버릴 단단하고 빛나는 칼을 손에 쥐라고. 엎드려 신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너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라고. 설령 그 행로 끝에 상처투성이 너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너는 한기연이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리듬 난바다』, 문학동네, 2025, 140면)

배하은: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이 대목을 골라주셨다고 해서 다시 읽어 보았는데요. 방금 읽으신 “그러니 부디 너에게 덮쳐오는 미움과 증오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고. 그 양갓음의 고리를 끊어버릴 단단하고 빛나는 칼을 손에 쥐라고”라는 문장이 어찌면 『리듬 난바다』의 주제를 응집하고 있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소설 자체가 단단하고 빛나는 칼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소설에는 증오와 미움을 자원 삼아 홀로 뭔가를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동시에 그 고리를 끊어내는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20대 남성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인 시우와 기성세대에 속하는 강 선생의 관계입니다. 20대 남성들의 정치적 극단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우경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기성세대, 특히 이들이 배타적으로 적대시하는 86 세대와의 갈등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 두 세대는 사실 절대 화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리듬 난바다』에서 작가님께서서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마주칠 접점이 없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리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공동체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가님의 소설은 오히려 관계의 가능성, 인내와 희망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인물의 관계를 구상하시면서 어떤 고민이나 바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찌면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서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였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계엄을 겪으면서 받은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멜라: 거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50대 중년 남자와 20대 초반 남자가 같은 작은 회사에서 일해요. 둘은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말없이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제가 그렸던 것은 단순히 허구의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20대 청년은 장난기도 많고 요즘 청년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20대들이 조금 있어요. 가족이나 친인척 중 예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정치관이 진보적이고 바른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상점 주인분들이 “요즘 애 안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곧 요즘 애들은 어떻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요즘 애 안 같은” 남자 청년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그래프로 따지면 그들도 하나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강 선생 역시 50대 후반의 남성이고 큰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게이인 아들을 통해 경험한 것은 또 다른 끝에 있는 소수자의 자리였구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것은 다수의 보편적인 유형이라기보다, 이 끝에 있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첫 소설집을 낼 때부터 나는 그렇구나, 나는 이 끝의 모서리들에 자꾸 마음이 가고 그 이야기를 쓰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50대 후반의 남성과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자기 세대가 갖는 선입견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든 둘이 친해졌지만 계속 그럴 테고요. 다만 두 사람이 달라진 것은 서로를 보는 관계가 생겼다는 점이잖아요. 둘이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헤쳐갔거든요. 약간 동료애가 생긴 거예요. 동

지애가요.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체성과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려는 소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수조차도 어떤 집단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한 사람의 고유한 개인과 고유한 표정, 그들이 맺는 관계, 아주 구체적인 일상. 저는 자꾸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세대에서 개인으로 가는 구조는 조금 조심하려고 하고요. 개인을 구체적으로 그릴 때 소수의 문화나 다수의 문화가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설령 제 주변에 그렇게 진보적인 정치관을 갖고 올바른 청년이 없었더라도, 저는 요즘에는 그런 관계를 더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진적인 예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반영한 예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현실이 그 예술을 모방한다고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상상이자 꿈이자 하나의 예술품이었잖아요. 우리가 쓰는 도구나 우리의 스타일 같은 것들 모두요. 이 건축물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은 인간이 상상하는 예술을 쫓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쓰고 싶은 인물을 썼을 때, 누군가는 그 인물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로 쓰고 배하는 선생님이 읽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이미 그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꼭 사람이 실제로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사색하는 그 인물도, 저는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소설이라는 매체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어떤 이상향이 있고 어떤 사람이나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의 인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그 모델을 글로 써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야기되면, 어느 순간 그 존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강동호: 『리듬 난바다』를 읽으면서, 특히 허구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일종의 문학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구가 현실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앞서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가능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작가님의 비전과 생각을 지지하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학의 양적인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작품이 있다면 더 많이 읽히고, 대단한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현실을 계속 주입시키는 여러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서 배하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세대의 우경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작가님의 이번 작품에 묘사되는 혐오 댓글들도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형태의 혐오 발화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양산되고 있고, 그 짧은 문장과 언어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문학은 또 한편으로 무력하다는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은 무력하고 사람들은 빠른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요새

영화 하시는 분들도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하물며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문학이 과연 계속 지금처럼 불가해한 타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전혀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낭비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문학 작품은 그것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지요.

김멜라: 맞아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본이 돈을 벌고 증식하는 방식들, 이를테면 아파트나 주식, 코인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반면 천천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는 사실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고, 시류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술의 발달과 자본의 폭발이 의식의 혁명으로 갈 것 같아요.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 인간은 모든 직업에서 대체되잖아요.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요. 돈에 대해서도 어떤 기업인은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죠. 저축도 하지 말라, 돈이나 화폐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이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큰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흥과 폭발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뭘 할까요? 저는 물질의 끝까지 가면 의식의 혁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텍스트집 같은 소비 문화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는 흐름, 자신의

정신 쪽으로 가려는 흐름이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무슨 예언가 같은데요.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웃음)

그런 흐름이 왔을 때 그 흐름에 휩쓸려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대문학자대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단단하게 원심력과 구심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퍼져가고 세상에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을 모으고 우리의 일을 지키고 자리를 만들어가다 보면, 그런 세상의 흐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지점이고요. 사실 우리가 아주 크게 부를 축적하거나 큰 명예를 얻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학을 하는 분들이나 연구자분들 중에서도 소수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자리도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만 바라보기보다 개인의 의식, 개인의 정신,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쪽으로 시점을 많이 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문학장의 변화와 독자의 부상

강동호: 문학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제도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말해 온 비전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한국문학장의 경우에도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단 내 성폭력과 표절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과 반성,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평가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도 많이 분산되었고 등단 제도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화되었구나 싶지만, 거꾸로 보면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화되고 축소되고 다변화되고 분산되었지만 시스템은 오히려 더 교활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현장에 있으면서 느낄 때도 많습니다. 작가님도 소위 문학장 안에 있는 제도적 인준과 평가의 중심을 통과해 오시면서 계속 글쓰기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요, 한국문학장의 제도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멜라: 그러면 사실은 제가 경청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연구자분들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신지를 제가 듣고, 작가분들이나 출판계 분들도 많이 들으면 좋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등단 제도와 관련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연히 일본에서 영화와 문학 평론을 하는 젊은 평론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물론 일본어로 한 건 아니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일본에는 신인 평론가를 뽑는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론을 하고 싶어도 길이 없대요. 신인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미 출판사에서 책을 낸 사람들 중 좋은 신인 작가를 뽑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원고만 보고 평론가나 작가를 주목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평론가의 자리가 늘 흔들리고, 스스로도 이 일이 꼭 필요한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영화를 보고 글을 쓰는 것, 또 글을 읽고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젊은작가상이나 『소설 보다』 같은 시스템과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그렇게 젊은 작가를 주목하는 시스템 안에서 감사하게도 여러 번 주목을 받은 사람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그 평론가가 부러워할 만큼, 어떤 시기에는 젊은 작가와 젊은 평론가가 한 쌍이 되어 책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소설 보다』처럼 한 계절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들의 글을 싣고, 평론가가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도 굉장히 좋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한 편으로는 그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도 생기는 것 같아요. 등단한 사람만, 혹은 지면이나 웹진에 발표된 작품들만 우선적으로 추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르문학에 대한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한계점이나 보완점을 수정해 가면서, 계속 젊은 작가와 신인 평론가들에게 주목하는 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작가 약력의 형식입니다. 작가 약력을 쓸 때 보통 처음에는 등단 연도를 쓰고, 등단 지면을 쓰고, 그다음에 낸 책들을 쭉 적은 뒤 마지막에 수상 내역을 쓰거든요. 거의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것을 빼겠다고 하면 언제나 자유롭게 뺄 수 있어요. 꼭 넣어야 한다는 곳은 신문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신문사나 몇몇 곳에서 ‘1983년 서울출생’ 같은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출판사나 문예지는 항상 작가의 의도를 많이 반영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백조』라는 문예지에 작품을 게재했을 때 거기에 서는 약력을 쓸 때 등단 연도를 아예 쓰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요. 왜 그러냐고 여쭙봤더니 편집위원님들께서 등단 연도와 등단 지면을 앞에 쓰는 것을 우리 매체에서는 하지 말자고 합의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실은 사람들은 다 등단 연도가 없는 거죠. 등단 지면도 없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어떤 작가가 좋으면 또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글을 발표했고 어떤 글을 썼지, 하고요.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이미 관습이고 전통이라 할 만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은 어디에나 들어맞는 호환성 좋은 제도나 원칙은 없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도 심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청탁을 하는 것이나 심사를 하는 것이나 출판사에서 상을 꾸려가는 것이나 늘 그 순간순간의 상황과 조율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맞는 것을 균형 있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큰 줄기에서의 보완점은 계속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하은: 마지막으로 독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한국문단 구조의 변화를 떠올려 보면, 그 변화의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독자의 부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평론가나 지식인 평론가에게 집중되어 있던 발화권이 재조정될 수 있었던 것도 더 많고 다양한 독자들이 “내가 읽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텍스트hips를 말씀하셨듯이,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문학이 지나치게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기대에 기대면서 시장 논리에 포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인플루언서가 한 작품을 언급했을 때 그것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자 대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쉽게 휩쓸리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작가님께 독자인 어떤 존재인지, 또 이전과 다른 의미에서 독자의 부상을 체감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멜라: 독자의 부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수의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흐름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나, 그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또 다른 소외된 층이 생기는 문제는 사실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층이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도 거품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거품이 없으면 맥주를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거품도 조금 있고, 밑에 깔린 진한 맛도 있고요. 문학의 독자층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정된 층이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읽는 사람이 쓰고 쓰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읽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다, 저자다, 평론가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는 것이 그 세 층이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 층이 건강하게 맞물려 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한쪽으로 너무 휩쓸리는 일은 중간중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봐야 하고, 그에 대해 쓴소리하시는 분들이 늘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자분들처럼요. 문학이 좋은 점, 책이 좋은 점은 항상 쓴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깐깐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아주 오래 독점하거나 허튼소리를 할 수 없거든요. 글을 읽는 사람들,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깐깐함과 독자의 부상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리는 분야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독자분들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독자층이라기보다 저에게 손편지를 주는 한 분, 여기 지금 계시는 한 분의 얼굴, 눈빛, 느낌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소설을 쓸 때나 독자를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혹은 한편으로는 “김멜라 글은 읽지 마라”, 꼭 김멜라만 짚어서 “김멜라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독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저를 미워하는 독자층이 아니라 그 독자 한 분이거든요. 항상 그 한 분 한 분의 개성과 고유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독자로 느껴집니다.

5. 청중과의 대화

강동호: 이제 청중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멜라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중 1: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가님의 책 중에서 『없는 층의 하이젠스』를 몇 번이나 읽을 정도로 좋아해서 여쭙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앞서 나는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없는 층의 하이젠스』는 제도

안에서 없는 존재로 취급되는 사람들을 써 내려간 소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손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경청의 윤리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언권을 공평하게 줄 수 있는 세상은 사실 경청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없는 층의 하이젠스』가 이 대답의 제목인 「뭉 없는 자들의 말하기」나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을 쓰실 때 어떤 사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거운 이야기인데도 무겁게만 쓰이지 않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소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멜라: 『없는 층의 하이젠스』는 저의 첫 장편소설인데,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가서 제가 쓴 소설 속 인물 중에 누가 가장 좋으나, 누구에게 가장 애착이 가느냐고 물으면 저는 『없는 층의 하이젠스』의 아세로라를 이야기해요. 아세로라는 10대 청소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길게 쓴 소설 속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아세로라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 「뭉 없는 자들의 말하기」는 제가 정한 타이틀은 아니지만,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쓴 글들에는 뭉이 없는 자들의 목소리 혹은 말하기가 굉장히 특징적이구나, 저도 이 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없는 층의 하이젠스』도 없는 층에 관한 이야기예요. 건물에 분명히 층이 있는데, 그 층이 오래되어 등기부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등기부가 없는 건물이 많았대

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만약 그 건물 2층에 등기부가 없다면, 그 2층에서 살았던 사람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층이 되는 거예요. 없는 층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이센스는 1970년대 군사독재 때 유행했던 말 중 하나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글을 못 읽는 할머니가 하숙집을 했는데, 하숙생이 글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글씨를 굉장히 예쁘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대학생 하숙생이 대자보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 만세’ 같은 말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공작이었죠. 그래서 그 대학생은 의문사를 당하고, 할머니는 자기가 그 대학생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립니다. 그런 옛날의 이야기를 손녀와 살면서 풀어나가는 소설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썼던 이유는 저희 외갓집이 남산 아래에 있었고, 외할머니가 지금은 좀 편찮으신데 하숙집을 하셔서, 제가 그 하숙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어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어른이 저희 외삼촌이에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었던 삼촌인데, 학생 때 그 삼촌의 모습이나 이야기를 저한테 자세히 하지는 않으셨지만, 1년에 몇 번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분의 느낌과 삶이요. 그런데 그분은 정치적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이고,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 2: 아까 인공지능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시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통계를 바탕으로 모범답안을 산출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글쓰기에는 생존의 감각과 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가님께서 인공지능

지능 시대의 문학적 개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멜라: 인공지능의 통계보다 개성이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유한 사람, 고유한 목소리, 지금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짧은 순간에 오고 가는 교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함께하는 이 순간의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하고요. 인공지능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통계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책으로 쓴 것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요. 제가 인공지능을 동료 작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조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생각할 때, 사유할 때, 소설에 담아낼 때, 혹은 연구하실 때 지금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개성, 고유한 목소리, 저도 그것이 글과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3: 작품 속에서 인물을 호명하는 방식이 몹시 흥미로웠습니다. 소설 안에서 인물이 별명이나 특징, 가족관계, 특정한 키워드 등을 통해 불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소설 속 인물들을 이처럼 다채롭게 호명하시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멜라: 인물을 호명할 때 저는 별명을 많이 쓰고, 외국어도 조금 쓰고, ‘먹점’, ‘눈점’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도 많이 쓰거든요. 김멜라라는 이름도 필명이고요. 제게는 필명도 있고 본명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 이랬다면 제 연인이 저를 부르

는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별명을 많이 붙이고요. 우리가 아기가 예쁘면 아기한테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잖아요. 반려동물이 예쁘면 반려동물의 이름도 상당히 변형해서 부르죠. 저는 그런 언어의 생동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친밀함과 감정이 드러나는 언어의 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그런 살아 있는 관계나 감수성을 소설에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름 하나로 부르는 것보다, 소설 속 인물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별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나 특징,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자주 입는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그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별명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의 이름으로는 부족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서로를 호명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이 있고 친근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 친근함을 담고 싶어서 소설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배하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감으로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김멜라 작가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작가님의 소설 작품을 통해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김멜라 작가님의 마지막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멜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동호 선생님, 배하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도 너무 알차게 준비해 주셨고, 대본도 몇 번씩이나 보내주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현대문학자대회 관계자분들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가 1회부터 3회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짧게나마 들었고,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그 취지와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참석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